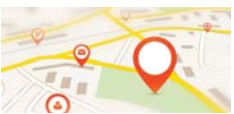




■ 현무암으로 조성된 수직정원과 수반으로 이루어진 대형 양지식물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신비의 정원.
■ 계절별로 주제를 바꾸어 식물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식물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정원인 중앙홀.
■ 탐스러운꽃으로 화려한 자연의 시선을 끄는 수국.

형형색색 어우러지며 사계절 꽃의 향연



제주 핫플레이스 (46) 여미지식물원

‘거대한 유리온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여미지 식물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난대·온대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그 곳에, 지금은 만개한 수국이 다채롭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시선을 끈다. 지난 봄 미처 꽃의 향연을 만끽하지 못했다면, 아쉬운 마음을 이 곳에서 달래보면 어떨까. 드넓은 야외정원을 산책하며 휴식을 통해 잠시 삶에 쉼표를 두는 것도 권해본다.

여미지식물원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로 열대식물을 전시하기 위해 1989년 개원했다. 1992년에는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동양 최대 온실식물원으로 인정받았고, 2003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돼 한란, 죽백란, 전주물고리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도내 서식지에 복원해 나가고 있다.

식물원은 크게 외부 옥외식물원과 온실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800평의 온실식물원 내

부는 입구홀부터 수직정원, 암석원, 수반의 신비의 정원이 조성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종 테마별 전시와 이벤트 행사가 열리는 중앙홀을 중심으로 꽃의 정원, 물의 정원, 선인장

유리온실 테마정원서 ‘힐링’ 다양한 식물 감상 이색 체험 산책하듯 거닐며 삶에 쉼표를

정원, 열대 정원, 열대과수원 등의 테마정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1300여종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중앙의 38m 높이 전망타워에 오르면 시원스레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바깥으로 나가면 동서양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정원부터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정원을 비롯해 허브정원, 습지원, 호스타원에는 1000

여종의 난대·온대식물이 조성돼 있다. 질주본능을 자극하는 온실 뒤편 탁트인 잔디광장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되기도 한다.

곳곳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돼 있지만, 식물원 어디에서든 다채로운 꽃과 나무를 배경으로 한 ‘인생샷’을 손쉽게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여미지식물원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해설사와 함께 식물원 내 온실과 옥외 정원을 산책하며 제주자생식물과 식충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직접 식물을 식재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클레이와 다육식물로 ‘나만의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명화 속 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기, 판화로 식물 표현하기를 비롯해 다양한 미술재료를 활용해 정원을 만드는 ‘어린이 조경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식물원측은 향후 일반인 가족단위도 신청 받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7) 강용준 희곡 ‘폭풍의 바다’



극단 이어도가 강용준의 희곡을 바탕으로 1997년 무대에 올린 ‘폭풍의 바다’.

“웅장한 자연 앞에 이념이 무슨 소용”

4·3 때 바다 건너 총련동포 50대 자녀 주인공의 첫사랑 “바다가 제 운명” 2세의 선택

그들은 바다를 건넜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1932년 제주도과 오사카 사이에 배길이 놓이자 한때 제주도 인구의 1/4에 달하는 5만 명이 일본으로 일거리를 찾아 떠났다. 오사카 지역에 제주 출신자들 한 동네를 이루며 살았던 그들은 해방이 되자 귀향길에 오른다. 다시는 고향을 등질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제주4·3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참극을 피해 제주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다. 당시 얼마나 많은 이가 일본으로 향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만명은 넘을 것(김창후의 ‘4·3으로 만나는 자이니치’)으로 본다.

강용준의 희곡 ‘폭풍의 바다’(1993)에는 그 자이니치가 등장한다. 한국연극협회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희곡으로 극단 전망이 1994년 2월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이래 제주 극단 이어도가 몇 차례 무대에 올랐다.

1막 5장 ‘폭풍의 바다’는 52세 남녀 김경자가 운영하는 ‘해녀식당’에서 막이 오른다. 바닷바람에 녹이 쓴 간판을 단 해녀식당에 일본어 관광 가이드인 작은 딸 최윤선의 안내로 ‘조총련 모국 방문단’ 일부가 찾아온다. 54세 손성민과 30세 아들 손진규다.

경자는 고향음식이 그리웠을 이 름모를 손님을 위해 옥돔 넣은 미역국 등을 준비하지만 주변에선

‘조총련’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는 다. “조총련? 아이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구만요?” 전자제품 행상을 하는 달수 아버지의 대사는. 조총련계 동포들의 모국방문 사업은 1975년부터 시작됐다. 유신 정권은 북측보다 우월한 경제성장을 선전하며 성묘를 위해 남한 땅을 밟은 그들을 포섭하려 했다.

‘폭풍의 바다’ 속 성민은 경자의 첫사랑으로 30년 만에 고향에 온다. 그와 맞서는 인물은 경자의 전 남편인 4·3 토벌대장 최순탁이다. 자신도 ‘시대의 희생자’라는 운명. 부모가 반동으로 처형당하고 빈털털이로 월남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정부에서 빨갱이 잡을 토벌대를 모집한다기에 지원했고 그것이 서정일 뿐이었다고 항변한다.

경자는 폭풍치는 바다가 문을 열어주는 검은 굴 속에 “이어도로 가는 통로가 있다”고 믿는다. 성민은 바다와 맞닿은 남떨리지 ‘에덴 동산’에 올라 “웅장한 대자연 앞에 이념이고 사상이고 다 무슨 소용이나?”는 말을 건넨다.

부모 세대의 상처를 안은 채 출생의 비밀 등 속절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20·30대 2세대도 끝내 바다에 다다른다. 성민의 양아들 진규 대신에 물질을 택해 제주에 남기로 한 윤선은 “이제는 바다가 제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바다가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는 소재로 쓰인 듯 하지만 이해불가 살육의 현장에서 까무러치지 않으려면 수평선 너머에 눈길을 두는 수 밖에 없었으리라.

전선기자 sunny@ihalla.com

몽쳐라 제에청! 높여라 참여의식! 펼쳐라 고향사랑!



제10회 제주시 애월읍민 한마음축제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창립 제18주년 기념 제10회 제주시 애월읍민 한마음축제를 5만여 읍민가족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9년 6월 9일(일) 09:30

▶ 장소 : 한리중학교 체육관

◎ 주 최 : 제주애월읍민회 · 제주시애월읍청년회

◎ 주 관 : 제주시애월읍청년회

◎ 식전행사 : 난타공연

◎ 후 원 : 애월읍, 26개리 청년회(향우회), 애월읍연합청년회, 애월읍3개중 학교총동창회

경의중독 한미음담방기, 공주님모시기, 신발차기, 줄다리기, 어린이이벤트

◎ 경품추첨 :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애월읍민회 · 청년회 역대회장/대회임원

읍민회 · 초대2대회장 강창익 · 3대회장 박규현 · 4대회장 김익수 · 5대회장 강성연 직전회장 조성호

청년회 · 초대회장 양호선 · 2대회장 문상수 · 3대회장 강평구 · 4대회장 송성하 · 5대회장 장군태 · 6대회장 신진호 · 7대회장 고영남 · 8대회장 백동훈 직전회장 양창영



제주애월읍민회장

● 애월읍민회장(명예대회장) 문 상 수 010-3694-8621
● 수석부회장(부대회장) 이 광 우 010-3699-4082
● 상임부회장(집행위원장) 강 평 구 010-2691-8388
● 사무처장 : 신 진 호 010-3698-3279



제주시애월읍청년회장

● 청년회장(대회장) 고 태 남 010-9840-6036
● 수석부회장(부대회장) 양 행 돈 010-2699-1845
● 부 회 장(집행위원장) 고 정 규 010-9458-3887
● 사무국장 : 장 찬 빈 010-8664-2233



제주애월읍민회 회장 문 상 수



제주시애월읍청년회 회장 고 태 남